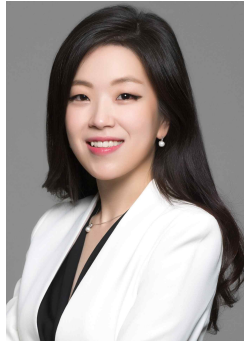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6 지방직 국어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KG팩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비타에듀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2016 지방직 9급

문 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열쇠, 새빨갰다 ② 덮밥, 질푸르다
- ③ 감발, 돌아가다 ④ 젊은이, 가로막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이론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나래국어 일타이피, 딱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 '열쇠, 덮밥, 감발, 젊은이, 가로막다' 선지 적중

형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품사'와 '단어의 형성'입니다.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 기준은 간단한 듯하지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누락한 것과 동음 탈락한 것(날짐승, 열쇠)은 판별하기 어려워 쟁점이 되는 단어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정답 해설:

덮밥: '덮-+(은)+밥'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
질푸르다: '질-+(고)+푸르다'에서 연결 어미 '-고'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

★ 오답 해설:

- ① 열쇠: '열-+(은)+쇠'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 동음 탈락된 통사적 합성어
새빨갰다: '빨갰다'에 접두사 '새-(매우 길고 선명하게)'가 결합한 파생어
- ③ 감발: '감-+(은)+발'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
돌아가다: '돌-+-아+가다'와 같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
- ④ 젊은이: 용언의 관형형 '젊은-'이 의존 명사 '이'를 수식한 통사적 합성어
가로막다: 부사 '가로'가 동사 '막다'를 수식한 통사적 합성어

2016 지방직 9급

문 2.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회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흔친 이유가 있겠지.
-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예요.
-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궜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나래국어 일타이피, 딱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 '일탈, 내로라하는, 들르다'의 활용, 준말 '생각지' 선지 적중

맞춤법 문항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을 밑줄로 주지 않으면, 실수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금방 쟁점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문장에서 하나의 쟁점만 발견해도 검토를 마쳤다고 착각하고 속도를 내려 들거든요. 밑줄이 없을 때에는 문장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 정답 해설:

들르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들리다'는 '들다'의 피동사

거예요: 의존 명사 '거'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 어미 '-어요/-예요'가 붙은 형태이다. 받침이 없는 경우 준말을 쓸 수 있으므로 '거어요/거예요'와 같이 쓴다.

★ 오답 해설:

① →치러야: '치르다'의 어간 '치르-'에 모음 어미 '-어'가 오면 '-규칙 활용'에 따라 '-아'가 탈락되어 '치러'가 된다.

+ '대가(代價)'와 같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예외: 곳간, 찻간, 텃간, 숫자, 횃수, 셋방)

② →뒤흔친: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의 의미는 '뒤쳐지다'이다. '뒤쳐지다'는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의 의미이다.

+ '내로라하다'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의 의미이다. '내노라하다'는 바른 표기가 아니다.

④ →잠가: '잠그다'의 어간 '잠그-'에 모음 어미 '-아'가 오면 '-규칙 활용'에 따라 '-아'가 탈락되어 '잠가'가 된다.

+ '생각하지 못했다'의 준 형태는 어간의 끝음절 '하' 앞에 안울림소리가 있으므로 '하'가 통째로 탈락되어 '생각지 못했다'로 적는다.

2016 지방직 9급

문 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나래 무료특강 어문규정 마스터, 모두의 약점> - 출제 요소 적중

띄어쓰기는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암기하는 것이 첫째, 품사 통용을 하거나 형태가 같은 어미, 조사, 의존명사, 접사 등의 의미를 나누어 쟁점에 대비하는 것이 둘째, 다양한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셋째입니다.

★ 정답 해설:

으로부터: 격조사 '으로'와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십여 년 전: '-여'는 수량 뒤에 붙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년(年)'은 의존 명사이고 '전(前)'은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오답 해설:

② →정한 대로: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짤 수밖에: 부정의 서술어 앞에 쓰이는 '밖에'는 조사이므로 의존 명사 '수' 뒤에 붙여 쓴다.

'밖(명사)+에(부사격 조사)'는 앞의 단어와 띄어 쓴다.

③ →요청 시: '시(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 말에 띄어 써야 한다.(예외: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재조정하여야: '재조정하다'는 하나의 동사이므로 붙여 쓴다.

④ →추진력마저: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마저'가 부사로 쓰일 때는 '남김없이 모두'의 의미를 지닌다.

감당할 만한: 보조용언 '만한다'의 활용인 '만한'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능력뿐: 체언 뒤에 붙은 '뿐'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오는 '뿐'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다음 이유진 나래 카페 : <http://cafe.daum.net/naraeyoujin>

2016 지방직 9급

문 4.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 **길러진다**. 따라서 ㉣ **자신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 ①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②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③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④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쓰기(작문) - 고쳐쓰기

<나래국어 일타이피, 닥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유형 적중

작문의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휘 차원: 적절한 어휘(문맥상 부적절한 유의어로 대체하지 않았는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순화어 등
2. 문장 차원: 괴담/사담의 적합성, 성분 사이의 호응, 중의성, 높임, 시제, 띄어쓰기 등
3. 문단 차원: 통일성(수제에 수합하는 뒷받침 문장들), 유기성(지시어, 접속 부사, 문장의 순서), 완결성(일반화 진술의 내용에서 누락된 정보) 등

☆ 정답 해설:

접속 부사는 앞뒤의 내용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의 앞에는 창의적 사고를 위한 개인의 내재적 동향성이 제시되어 있고, ㉡의 뒤에는 이를 개발하기 위한 외부적 자극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역접의 접속 부사 '그러나'가 적절하다. 대등 병렬 관계에 쓰이는 '또한'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 ‘돌파하다’는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다,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다, 장배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 내다’의 의미이다. 주어진 문장은 ‘기존의 사고 방식’을 넘어 서자는 이야기이므로 ‘탈피하다(脫皮,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 수식을 받는 무의미어(의존 명사)를 주어로 가질 때에는 서술어도 호응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 길러진다는 절이다.’로 고쳐야 한다.
- ③ ㉢: 제시된 문단은 ‘A 그러나 < B 따라서 = C(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 앞에는 접속 부사 ‘따라서’가 있으므로 ㉢은 ‘결론 C’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2016 지방직 9급

문 5.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의 음이 다른 것은?

- ① 否認 ② 否定
③ 否決 ④ 否運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한자 - 동음이의어

나래 특강 <한자 벼락치기>, <파이널 암기 워크북> 정답과 선지 모두 일치

☆ 정답 해설:

뜸: ‘아닐 부’, ‘막힐 비’

‘否運(비운: 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른 운수 / 불행한 운명)’은 ‘비’로 읽는다.

☆ 오답 해설:

- ① 否認(부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② 否定(부정):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 ③ 否決(부결):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2016 지방직 9급

문 6.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생각의 위대함이나 동요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이상적,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이론 문법 - 언어와 국어

이론 마무리 특강 <출제포인트 99> - 언어와 사고의 관계 적중

☆ 정답 해설: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지문 전체의 내용은 사고가 언어에 의존한다는 내용이지만, 밑줄 친 부분은 말이 모든 생각을 담을 수는 없다는 관점의 '사고우위론'이다. 따라서 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감동)을 이야기한 ③이 예로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어원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필연적 발생은 없다 - 언어의 자의성
 - ② 동일한 개념에 대한 언어가 나라마다 다르다 - 언어의 자의성
 - ④ 언어는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 언어의 분절성
- 언어는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다. - 언어의 사회성

2016 지방직 9급

문 7.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는 어떤 공동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패널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 **패널 토의**는 3 ~ 6인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유형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① ㉠과 ㉡은 모두 ‘셋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② ㉠과 ㉡은 모두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 ③ ㉡은 토의자가 셋강의 생태적 특성, 셋강 살리기의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 ④ ㉠은 ‘셋강 살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말하기(화법) - 토의의 유형

이론 마무리 특강 <출제포인트 99>

<나래국어 일타이피, 다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 토의의 유형 적중

★ 정답 해설:

토의와 토론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집단적 말하기이지만, 토론은 하나의 쟁점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따라서 '찬반 입장을 나누어' 말하는 방식은 토의가 아닌 토론이다.

★ 오답 해설:

- ① '전문가 참여',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은 ㉠, ㉡의 공통점이다.
- ② 토의의 목적은 최선의 해결안을 얻는 것이다. ㉠, ㉡은 모두 토의이므로 이에 부합한다.
- ③ 지문의 '다만' 뒤에서 ㉡이 ㉠과 다른 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2016 지방직 9급

문 8.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시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단?"

나는 그를 밀어 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낀 그 음보를 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낀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열! 화열! 빈곤, 주립,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김동인, 「광염 소나타」 중에서 -

- ① 화려한 기교가 없는 연주
- ②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연주
- 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주
-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문학 독해 - 현대 산문 - 내용 이해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 - 낯선 산문 분석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 - 문맥 추론

지문이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문학 문제는 아닙니다. 8번과 9번은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고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죠.

8번 문제는 낯선 작품의 낯선 부분으로 비문학 문맥 추론 문제와 같은 방법론을 요구하였고, 9번은 말하기(화법)에서 말하기 방식을 출제하였습니다.

★ 정답 해설:

지문에서 밑줄 친 '감정의 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그'의 거듭된 시도에도 아무 효과도 없는 소리였으며, 야성이나 힘이 귀기 같은 것이 없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다. '나'가 '그'를 밀어 놓고 피아노로 그 음보를 타자, 감금당한 기괴한 감정이 느껴졌다. 따라서 '감정의 재'는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소리를 의미한다.

★ 작품 참고 해설:

백성수는 광포한 야성 때문에 술과 심장마비로 죽은 아버지와 교양 있고 어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온량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가난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뒤 방화(放火)하게 된다. 그 때문에 야성적 천재성이 폭발하여 <광염소나타>를 작곡하게 된다. 그뒤 K선생의 배려로 작곡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강도가 심한 자극이 없이는 작곡할 수 없게 된다. 마침내 방화·사체유희(死體遊戯)·시

간(屍姦)·살인까지도 저지르고 욕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작중 화자인 K선생은 이러한 천재를 단순히 사회 윤리 때문에 말살시킴은 옳지 않다고 극력 변호한다는 줄거리이다. - 광염소나타 [狂炎-]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2016 지방직 9급

문 9.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 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으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다리께 가게루 갈 테니."

"어디 참, 땀은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뱃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구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들쳐서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 인제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제, 개천가 선술집으루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참, 땀은 술집으루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뒤편 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왜 들어가는지 아르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루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십 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 먹구 허는데, 그래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 한 켤짜릴 거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곤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는거든요. 그래 은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켤짜리루 바꿔 달래서"

- 박태원, 「천변풍경」 중에서 -

- ①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 ②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말하기(화법) - 말하기 방식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 - 화법 말하기 방식

<나래국어 일타이피, 다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 말하기 방식 유형 적중

지문이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문학 문제는 아닙니다. 8번과 9번은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고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죠.

8번 문제는 낯선 작품의 낯선 부분으로 비문학 문맥 추론 문제와 같은 방법론을 요구하였고, 9번은 말하기(화법)에서 말하기 방식을 출제하였습니다.

★ 정답 해설:

소년이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에 대해 대화를 주도하며, 상대방(어른)의 궁금증을 끌어들이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제시된 지문 안에서는 한 대상에 대한 두 사람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 ③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상황은 아니다.
- ④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지만 절충점을 찾는 과정은 아니다.

2016 지방직 9급

문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떴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 ① 학생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②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
- ④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비문학 독해 - 주제

<나래국어 법률저널 칼럼 - 플라시보 효과> - 지문 적중

지문을 잘 요약해서 주제를 가답안으로 만든 뒤, 가답안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 지문의 직업적인 부분에 빠져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화가 제시된 지문일 경우 그 일화를 활용한 목적이 주제가 됩니다.

★ 정답 해설:

지문에 제시된 실험을 요약하면, 학생의 공감적 듣기가 교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어 학생들이까지 변화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이 지문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② 학생 간, 교수 간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 사이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 ③ 언어적 메시지가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며 듣기,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듣기' 등 비언어적 메시지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

2016 지방직 9급

문 11.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어휘 - 속담

<나래국어 닥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암기테스트>

- 정답 포함 선지 3개 적중

제가 속답이랑 사자성이 주제별로 외우자고 했죠? ^ ^

이번에 한자랑 속답이랑 우리 국가직부터 적중률 좋네요.

사실 이젠 운도 따라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행지도 엄청 적중함 ^ ^ 뿌듯~

★ 정답 해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해설: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6 지방직 9급

문 1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숲에서 자생하던 희귀 식물들의 개체 수가 줄었다.
-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 ④ 현대 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난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어휘 - 한자어

<나래국어 파이널 암기 워크북>, <나래국어 무료특강 어휘 마스터>

- 선지 中 3개 적중 (자생, 개재, 유례 적중)

★ 정답 해설:

→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개재(介在):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개계(階梯):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 오답 해설:

- ① '자생(自生)'은 '저절로 나서 자라다'의 의미이므로 주어진 문맥에 적합하다. '자생하다'를 동물에 쓰는 경우 적합하지 않다.
- ③ '성패(成敗)'는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주어진 문맥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 경우 승리와 패배를 뜻하는 '승패(勝敗)'는 쓸 수 없다.
- ④ '유례(類例)'는 '같거나 비슷한 예'를 뜻하는 말이라 '전례(前例)'가 없다는 의미로 쓰인 문장이다. 이와 흔히 헷갈리는 '유래(由來)'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2016 지방직 9급

문 13.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타월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나래국어 무료특강 모두의 약점> - 품사의 변별 출제 유형 적중

<나래국어 일타이피, 닥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 한, 외, 이 적중

★ 정답 해설:

① 4개: 타월, 한(관형형의 수식을 받았으니 명사), 독보적(뒤에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 이어지니 명사), 기록

참고> 타월(명)에(조) 관한(동) 한(명) 독보적(명)인(조) 기록(명)도(조) 깨졌다(동)

★ 오답 해설:

② 2개: 상자, 것(의존 명사)

참고> 상자(명)에(조) 이런(관) 것(명)이(조) 깔끔하게(형), 정돈되어(동) 있었다(동)

③ 3개: 친구, 외(의존 명사), 사람

참고> 친구(명) 외(명)에(조)는(조) 다른(관) 사람(명)에게(조) 항상(부) 못되게(형) 군다(동)

④ 3개: 모퉁이, 얼굴, 이(의존 명사)

참고> 저(관) 모퉁이(명)에서(조) 얼굴(명)이(조) 하얀(형) 이(명)가(조) 곁어오고(동) 있다(동)

2016 지방직 9급

문 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학술지의 규정(規正)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한자 - 동음이의어

나래 특강 <한자 비락치기>, <파이널 암기 워크북>

- 선지 中 3개 적중 (규정, 구조, 현상)

★ 정답 해설:

充分: 채울 충, 나눌 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뜻으로 문맥에 맞게 쓰였다.

★ 오답 해설:

- ① → 규정(規定 법 규, 정할 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규정(規正: 법 규, 바를 정): 바로잡아서 고친다
- ② → 구조(構造 엮을 구, 지을 조):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
구조(救助 구원할 구, 도울 조):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
람을 구하여 준다
- ④ → 현상(現狀 나타날 현, 형상 상):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현상(懸賞 매달 현, 상 줄 상):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건다

2016 지방직 9급

문 1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 미답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口蜜腹劍형의 사람이다.
-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一敗塗地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首鼠兩端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 면 참 後生可畏하다는 생각이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한자 - 한자성어

나래 특강 <사자성어 비락치기>, <나래국어 동형 모의고사>

- 선지 中 3개 적중 (구밀복검, 수서양단, 후생가외)

★ 정답 해설:

後生可畏(후생가외):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하므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진보는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

★ 오답 해설:

- ① 口蜜腹劍(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

② 一敗塗地(일패도지): 싸움에 한 번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 한 번 싸우다가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③ 首鼠兩端(수서양단):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

2016 지방직 9급

문 16.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사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은행에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관리에 다소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 ①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②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영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말하기(화법) - 말하기 내용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 - 화법 말하기 내용 유형 적중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 - 내용 확인 유형 적중

말하기와 쓰기 유형도 비문학 독해 기본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문이 대화의 형식을 취해도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비문학 독해의 내용 확인 유형인 것이죠. 이 경우 선지의 주어와 확인하고 주어가 두 명인 경우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과 대조적인 의견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 정답 해설:

영수는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민수는 소비자들의 개인적 부주의에 책임을 묻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민수는 영수와 달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오답 해설:

- ②④ 영수는 은행의 입장에서 소비자 과실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 ③ 언급된 적 없는 내용이다.

2016 지방직 9급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 ②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 ③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비문학 독해 - 주제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 - 중심화제 파악, 주제 파악

지문을 잘 요약해서 주제를 가답안으로 만든 뒤, 가답안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고르셔야 합니다.

★ 정답 해설:

지문은 '위기'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 탐구하며, '위기'를 바라보는 서양과 동양의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②가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지문의 주제와 상충된다.
- ③ 지문의 주제에 대해 예외적 상황을 가정하여 비판하고 있다.
-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는 지문에 언급된 적 없는 논점 외의 이야기이다.

2016 지방직 9급

문 18. 다음 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 금와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 (중략) ...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 만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가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늑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리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력이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벼를 삼아 떠나 개시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닢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 ① ㉠: '유화'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 '유화'가 임신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문학 독해 - 고전 산문 - 내용 이해

<나래국어 타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 주몽 신화 지문 적응!

교과서 고전 작품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했죠? 현대 작품들과 달리 고전은 한정된 범주에서 나오니 주요 작품은 학습해 두면 좋습니다. 고전 산문은 줄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독해 속도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 정답 해설:

금와의 만아들 '대소'는 '주몽'을 질투하여 '후환'이라 표현하고 있다. 만아들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금와는 '주몽'에게 말을 준 것이다. '주몽'과 '대소'가 모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오답 해설:

- ① 유화는 해모수와 사통하여 귀양에 처해졌다.
- ② 햇빛이 유화를 따라다녔고, 이로 인해 임신하였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④ 주몽이 위급한 상황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황천후토(하늘의 신과 땅의 신)'에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다.

2016 지방직 9급

문 19.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근대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 ①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 ②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③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④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비문학 독해 - 문맥 추론 + 사례 추론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 - 중심화제 파악 패턴에서 지문 적응!

<나래국어 일타이피, 타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 지문 적응!

공시도 수능 쪽의 평가원 모의고사와 ebs의 지문을 변형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 적응도 가능한 것이죠. ^^ 제가 신도 아니고~ 문맥에 대한 사례를 찾을 때에는 밑줄 부분만 보지 말고 지문 전체에서 조건을 구하셔야 합니다.

★ 정답 해설:

밑줄 친 부분을 가지고는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권위주의적 양태'를 조건으로 더 찾을 수 있다. '권위주의적 양태'는 복종하려는 양태와 복종시키려는 양태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고,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있다.

2016 지방직 9급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켄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켄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테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즉각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공공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한, 남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또는 파티 도중에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시가를 꺼내어 입에 문다.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뱉어내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켄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켄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캠페인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즉각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켄련을 피우지 않지만, 싸구려 술집에는 여전히 켄련 연기가 자욱하다.

-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비문학 독해 - 논지 전개 방식

<나래국어 독해 알고리즘> - 논지 전개 방식

<나래국어 일타이퍼, 닥치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 유형 적중!

논지 전개에 쓰이는 전개방식들의 개념어를 공부하고 적용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 발문(적절하지 않은 것)일 경우 선지를 먼저 끊어 읽고 지문으로 올라가서 제시된 형식은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진행합니다.

★ 정답 해설:

지문에는 난해한 용어의 정의가 없다.

참고> 정의는 '피정의항'에 대한 '종차(차별적 특징)'와 '유개념(상위 개념)'이 있어야 성립된다.

★ 오답 해설:

① 3문단에서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시가를 피우는 사람과 켄련을 피우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생긴 이유를 밝혔다.

③ 1문단에서 시가가 유행하게 된 현상에 대한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견해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과 켄련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건 당국의 캠페인으로 인한 변화로 밝히고자 하였다.